

불자 세상보기



선업 스님
법 행복차유센터장

종교는 크게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야 세월의 터널을 통과하여 존재 가능하다고 한다. 첫 번째는 옛날부터 있어온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경전의 <양곡따라 니까야> AN 8.24 핫타가 경) 해답은 네 가지 해결책을 담은 '사십법'이다.

첫 번째 해결책은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나눔인 '보시'의 실천이다.

반갑게도 보시행의 실천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피해가 눈명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지역의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줄여 주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은 고무적이다.

'메르스 월세'라는 별칭의 보시 선물은 삶의 팍팍함을 녹여주는 좋은 예로

등장하며 세상의 살맛을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말을 나누는 '애어'의 활용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 위험에 노출돼 보름 동안 자가 격리됐던 한 간호사가 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근무하는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등교 금지 조치를 받은 것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다"는 내용의 편지글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편지로 인해 간호사의 자녀들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학교 측으로부터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뒷이야기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말 씌씀이에 대한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었다.

문수보살 계승을 보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부드럽고 진실해지고 말을 진실하고 부드럽게 하면 사람에게서 꽃보다 더한 맑은 향기가 나는 법인데 자신의 자녀를 챙기는 것이 지나쳐 안 그래도 힘겨운 이들에게 가지런한 말을 쏟아낸 것은 도가 지나쳤다. 이 때야말로 '힘내세요, 우리가 곁에 있

습니다'라는 따뜻한 말로 마음 아픈 이들의 마음을 녹여야 한다.

세 번째 해결책은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이타적 행위를 나누는 '제행(이행)'의 이행(履行)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스스로 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이행'의 좋은 예이자 나눔 활동의 꽃이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메르스 극복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1천

참 보시는 이웃에 대한 '배려'

오가는 말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 봉사의 삶을 늘려야

500명 가까이 모였고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일원으로 메르스 감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일손 돕기 활동, 방역활동, 자가 격리 지역 후원물품모집 등 적극적으로 돕는 이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으며 자비의 손길로 어려운 곳들을 도약시키고 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어울려 함께 사는

삶을 나누는 '동사(同事)'의 생활화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삶의 터전에 던져진 숙제이다. 사회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회복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회탄력성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함께하는 삶을 지지하는 내적 네트워크가 공고하다면 별 문제 없이 이번 일을 극복하겠지만 이웃과 고락(苦樂)을 나누는 삶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면 이번 일의 후유증은 더욱 깊고 오래 갈 수 있다.

어울림은 상대방이 있기에 자기 자신도 존재한다는 연가적 자각이 서로 배려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현실화될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이번 사태 해결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월세보시, 애어보시, 행동보시, 어울림 보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붓다의 정신을 이어 받은 의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로 힘든 이 때야말로 네 가지 해결책인 사십법으로 사회적 난관을 극복하는 불자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자리 싸움에 멎드는 佛心

새로운 방장 스님의 추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됐던 해인총림 해인사가 다시 시끄럽다. 내용을 종합하면 방장 스님이 특정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해인사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연, 원학 스님이 반발하고 나섰다. 방장 예정실에 비위가 있는 특정 스님은 주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주지 선거로 인해 생긴 잡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 주지 성월 스님의 사실혼 문제까지 거론되며 신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성월 스님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돈선거 의혹은 검찰에 불기소처분에 의해 마무리될 듯하다.

사실 불교계에서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직통을 이어받은 종단이고, 이 안에 있는 24개의 교구본사는 각 지역 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 소속 사찰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문제는 교구본사 주지 교체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방장 스님이 주지 추천권이 있는 총림마저도 주지 선거 갈등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근자의 해인사가 그렇고, 2014년 봉축 직전까지 내용을 겪은 동화사를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항상 갈등을 빚는 양측에는 본인들만의 명분이 있다. 여기에 정치 역학적 프레임이 함께 맞물리며 최근 대부분의 선거마다 갈등이 빚어진다. 민주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 아닌 단순한 이전투구식 '자리 싸움'이 된다.

과거 스님들은 주지 자리나 높은 소임을 "닭벼슬만도 못한 중벼슬"이라고 했다. 주지를 맡기면 바람을 걸머지고 암자로 도망쳐버리는 게 미덕이었다. 이 같은 옛 미덕은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이런 자리 싸움에 상처를 받는 것은 불자들의 '불심(佛心)'이다. 조계종이 새로운 청규 제정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청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율장대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수교는 50년, 문화재반환은 0년

지난 6월 22일로 한·일 수교, 특히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5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일 수교 당시 일본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불법적 수단으로 해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중 명목이 뚜렷하고 소재가 확실한 것을 선정,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모두 정당한 수단에 의한 입수물, 개인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기증'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반환'과 '기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인도'라는 용어 아래 1432점이 돌아왔다. 정부가 요구한 4479점의 32%다.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에 의하면 6월 현재 해외로 유출돼 공식화된 한

국 문화재는 20개국 15만6000여점에 이른다. 그중에 일본에 가장 많은 6만6000점이 있다

그중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의 상징이자 시민단체 등이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오구라 컬렉션'이다. 이곳의 불교 유물은 불교 조각, 회화, 공예품으로 분류되는데 공예품의 경우 일본 중요미술품으로 8건이 지정되는 등 가치가 높다. 불상 등 조각은 49점에 이른다. 과연 오구라 컬렉션은 돌아올 수 있을까. 환수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구라 컬렉션 반환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의 해문 스님은 지난 4월 국제박물관협회에 오구라 컬렉션 반환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문화재는 민족의 자존심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문화재 환수에 적극 힘을 기울이자.

발언대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반대

일본정부가 유네스코 심의에서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을 비롯한 일부시설에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고만 설명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사실은 끝까지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일본의 강제징용, 세계인이 안다”



이상근 공동대표

이번에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한 23곳 중 7곳은 일제강점기와 침략전쟁시기에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필리핀 등 당시 피압박민족과 연합군 포로를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킨 곳이다. 특히 하시마 탄광은 아이들을 동원해 해저 1000미터까지 경도를 파고 채탄작업을 시킨 곳으로 지옥도라고 불린 곳으로 나가사키 조선소, 비행장 등에 동원된 강제징용자들은 원폭 피해까지 입어 1만명 이상의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78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 피해규모가 상상을 넘는다. 특히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징용했고,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이번 등재 심사를 앞두고 일본정부가 보인 행보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마땅했다. 근대산업시설이라는 명분하에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특히 강제징용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조선정벌 등을 주장한 군국주의자 양심소인 쇼카순주쿠도 등재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강제동원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양심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행보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세계각국의 우려를 자아낼 것이다.

유네스코가 일본의 자금을 앞세운 로비에 무너진다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대응능력을 비판하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지지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국내외적으로 양심과 문명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

“日과 조건부 진행이라니, 한국정부에 실망”



김한수 할아버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된 아픔이 있는 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에 미리 정부가 조건부 합의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로 실망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이다.

본인은 1944년 8월 당시 26세 나이에 황해도 연백에서 강제징용당해 나가사키 조선소에 배치돼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동원됐다. 1945년 8월에는 나가사키 원폭피해로 피폭당하기도 했다. 머나먼 이역 땅에서 가혹한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렸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에 고생한 날들을 생각하면 어제 당한 일처럼 고통스럽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런 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여기의 해당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의 노력에 대한 한마디 사죄도 없고 일체의 보상도 거절하고 있다. 이들은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곳에 현재도 일본인 희생자는 큰 비석으로 기리고 있고, 한국인들의 무덤은 당시 일본인들의 애완용 개와 고양이들의 무덤가에 초라하게 섞여 있다. 이처럼 반성의 의사가 없는 일본의 협의 타진에 정부가 응했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은 식민지배 동안 벌인 잔혹한 행위들은 대부분이 반인륜적 행위로서는 수많은 세월이 가더라도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체인에 끌려 발가락뼈가 부서져서 소리가 나는데도 병원에 갔는데도 휴가를 안 해주고 가서 일하라고 했다. 개나 돼지처럼 일하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것이다. 물론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국가로서의 신용을 저버린 것이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가 어떤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속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까?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